



서울대학교 同窓會報

同窓會 指標 ①參與하는 同窓會 ②協力하는 同窓會 ③榮光스런 同窓會

發行人 崔主鎭
編輯人 鄭宗澤
印刷人 朴正雄

發行所

서울대학교總同窓會

121-040 서울特別市 麻浦區 桃花洞18-2

☎ 702-2233~5 FAX: 703-0755

銀行지로番號 7500875

對淸口座 010017-31-0621565

【1】月刊

1976. 4. 13 登錄番號(서)라-137號
1988. 11. 9 第3種郵便物(나)級認可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1994년 5월 1일

第194號

總同窓會 金在淳회장 時代 출범



지난달 18일 열린 常任理事會에서 新任會長團이 확정됐다. 이로써 同窓會 再跳躍의 時代가 出帆했다. 사진 (左)常任理事會에 참가한 同窓會 任員 및 冠岳會 任員들이 紀念攝影을 했다. 맨 앞줄 中央에 앉아있는 분이 金在淳 회장. (위)同窓會館 1층 로비에 除幕된 崔主鎭 前任會長의 胸像.

冠岳春秋

우리 同窓會는 지난 4월 18일 常任理事會를 개최하여 새로운 會長團을 構成했다. 任期滿了가 된 任員을 慣例에 따라 交替하는 한편 會長團의 規模를 擴大하여 16명의 新任員을 選任했다. 이로서 從前에 21명으로 構成되었던 會長團은 31명으로 增員된 셈이다. 이번 常任理事會의 決定은 同門들의 參與幅을 擴大시키려는 意圖을 나타내는 것으로 환영할만 하다. 이 理事會가 끝난 뒤엔 崔主鎭前會長의 胸像除幕행사 盛大하게 이루어졌다. 胸像은 同窓會館 1층 로비에 세워졌으니 앞으로 同窓會館을 출입하는 同門들의 눈에 쉽게 띄게 될 것이다.

同窓會가 同窓發展에 寄與한 人士의 功績을 기리기 위해 이러한 象徴物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現在의 冠岳春秋에는 特定한 同門의 功績을 기리기 위한 建築物이 많이 있다. 그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建築物을 建造해 주었기 때문에 大學에서는 그분들의 이름이나 企業名을 그 建物과 더불어 남겨놓고 있다. 醫大의 경우 本館의 玄關 左便壁에 醫大發展에 寄與한 분들의 銅版像과 아울러 그 功績을 記錄하여 남기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大學社會는 大學에 寄與한 人士의 功績을 현상함에 매우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母校와 같은 國立大學에 있어서는 그런 傾向이 더욱 큰 것 같다. 大學이 본래 保守의이고 특히 國立大學이 豫算의 大部分을 國庫에 의존하고 있음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 이외에도 大學의 脫俗의인 孤高의 影響도 있을 것이다. 이윽아 어쨌든 外國의 著名한 大學의 많은 銅像, 胸像 및 기타의 紀念物을 想起해 볼 때 母校의 현상은 매우 삼각하다 할 것이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번의 崔主鎭前會長의 胸像除幕은 큰 뜻을 간다고 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말해서 大學社會는 大學에 寄與한 人士의 功績을 현상함에 매우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母校와 같은 國立大學에 있어서는 그런 傾向이 더욱 큰 것 같다. 大學이 본래 保守의이고 특히 國立大學이 豫算의 大部分을 國庫에 의존하고 있음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본다. 그 이외에도 大學의 脫俗의인 孤高의 影響도 있을 것이다. 이윽아 어쨌든 外國의 著名한 大學의 많은 銅像, 胸像 및 기타의 紀念物을 想起해 볼 때 母校의 현상은 매우 삼각하다 할 것이다.

우리의 送舊迎新

다. 여기서 崔前會長의 功을 자세히 거론한 것은 뜻이 없다고 본다. 지난 10년간 崔前會長이 本同窓會會長으로서 同窓會의 발전에 기여했음은 우리 同門 모두가 알고 있는 터이다. 특히나 어떤 條件下에서 우리의 同窓會館 건립에 대한 功勞가 있었음은 길이 우리 記憶에 남을 것이다. 이같이 崔前會長과 우리의 同窓會館과는 떼어질 수 없는 관계가 있다 하겠다. 그 공을 기리기 위해 同門의 이름으로 胸像을 남기게 되었음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 하겠다.

새로 선출된 會長團은 이 紀念事業으로 새출발을 삼았다. 그것으로 送舊迎新의 때를 분명히 하게 된 셈이다. 前任者의 刻薄的의 노력으로 同窓會는 이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게 되었다. 1976년에 12면의 墨子版으로 創刊된 本紙는 紙面을 原色을 곁들인 20면의 月刊紙로 變換고 發行部數도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會員數가 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國內외의 支部의 數가 늘고 또 그 組織이 強化되었다. 本紙는 美洲版을 따로 發行함으로써 海外進出을 期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山大學 基金도 조성했다. 開校紀念 登山大會는 해를 거듭할수록 盛況을 이루게 되어 이제 同門과 同門家族들의 參與를 수 있는 各의 行樂行事가 되었다. 이외에도 그분들의 同窓會의 業績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의 同窓會의 新任員들의 활동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다. 훌륭한 遺産을 물려받은 우리 同窓會는 이제 新時代에 걸맞은 活動領域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일은 보기에 따라서는 지극히 創意的인 課題보다도 더 어려운 수도 있다. 그 까닭에 더욱 勇猛차기도 하다. 새로 迎入된 會長團의 健勝을 祝願한다.

끝으로 지난 10년간 同窓會 발전에 위해 盡力해 주신 崔主鎭前會長의 앞날의 幸福을 빈다.

地域育성·活性化 방안 모색

全南·光州지부 定期總會 개최

吳炳文지부장 「模範支部」 이룩 「다짐」

全南·光州支部同窓會(회장 吳炳文)는 지난 4월 7일(일) 신안읍 화곡리 신안초등학교에서 94년도 정기總會를 개최했다.



▲지난 4월 7일 개최된 全南·光州支部 定期總會

이날 총회에서 특전남지사는 추사를 통해 「나후원 전남광주지역 발전을 위해 재정이긴하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관 재임기간 소홀했던 동창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 특전남지사는 추사를 통해 「나후원 전남광주지역 발전을 위해 재정이긴하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으며,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관 재임기간 소홀했던 동창회 발전과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하며,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家族동반 登山대회 열기로

順天·光陽지부 定期總會 확정

順天·光陽支部同窓會(회장 陳重勳)는 지난 20일 순천로암관광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 총회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대약진위해 任員陣 개편

藥大동창회 擴大幹部會서 결의

藥大(同窓會)회장 黃善源은 지난 8일 리베라호텔에서 黃善源 지부장 취임후 첫 회차인 擴大幹部會를 개최했다.

黃善源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藥大의 발전은 동창회원의 열정과 헌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黃善源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藥大의 발전은 동창회원의 열정과 헌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黃善源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藥大의 발전은 동창회원의 열정과 헌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黃善源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藥大의 발전은 동창회원의 열정과 헌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黃善源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藥大의 발전은 동창회원의 열정과 헌신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文理大산악회 기념행사

連繫登山 6백55km 중주

文理大山岳會(회장 徐在萬)는 지난 4월 2일부터 6일까지 6백55km 중주(중주)를 완주했다. 이번 행사는 산악회 회원들의 체력향상과 우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學位취득동문에 祝賀牌

馬山지부 定期理事會 열

馬山支部同窓會(회장 金炯煥)는 지난 4월 1일(일) 마산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기로 결의했다. 또 95년도 정기총회 일정을 5월 26일로 확정, 발표했다. 한편, 京城(서울) 11회 졸업자 중 임원인 2명을 포함, 田基培·申鍾胤·金淑炯 등 7명에게 표창을 수여키로 했다.

財團발족 협의

看護大 이사회

看護大同窓會(회장 楊銀淑)는 지난 10일 오후 2시 간호대학 3층 교수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장(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부동창회로서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元話喜동문 農協회장 취임

法大卒 농협運動家 定評

지난 4월 23일 농협의 제2기 민선회장으로 선출된 元話喜동문(법대)는 62년 법대(서울) 법학과를 졸업한 뒤 농협운동가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그는 농협운동에 헌신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이 자리에 올랐다. 元話喜동문은 1980년 농협중앙회 이사, 1985년 농협중앙회 부이사장, 1990년 농협중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정품기념과 감사에 교수에 퇴년

93決算보고사항등 심의

行大院 理事추가選任도 의결

行大院同窓會(회장姜敏求)는 지난달 21일 롯데호텔 36층에서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46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金海東, 安海均, 崔鍾起 교수 정년퇴임 기념으로 분정사에서 감

사패 및 기념품을 전달한 내용과 94년도 제1학기 장학금으로 총 4백5만2천2백원을 5명에게 지급한 사항 등이 보고됐으며, 白樂準 감사의 93년도 결산보고 사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달 21일 열린 行大院 제34차 定期理事會

登山·定總行事 등 협의

工大동창회 景品준비 한창

工大同窓會(회장李連雨·韓國코트렐會長)는 동문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친목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린포자오는 22일(日)에 94년도 정기총회 및 제13차 동산대회를 개최한다.

무심이다. 전화 877-0568. 전화 877-0568.

를 불러나갈 계획이다. 藥大7회 定總준비 藥大7회同期會(회장金基任)는 지난달 7일 인사동 소재 「안마대」에서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동기회 회원들은 해외지부 활동화 대책을 논의했으며, 광주, 부산, 대구지부들을 순방키로 하는 한편 스포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7일 오후 7시 같은 장소에서 임원개선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키로 결의했다.

科技院 先任연구원대 話題

專門醫 朴鎔洙등은 變身에



內科專門醫師가 전문연구기관인 韓國科學技術研究院(KIST)으로 자리를 옮겨 화제가 되고 있다. 모교 병원 內科專門醫 朴鎔洙(86년 醫大卒) 등

있는 박용수 연구원은 지금까지 한국인을 겨냥한 성인병인 당뇨병과 각종 만성질환의 기초 및 의학연구를 주로 수행해왔다. 박용수는 이같은 연구 경험때문에 醫學과 自然科學, 工學의 접목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醫科學 연구에 많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승의 날」 기념행사 마련

家政大 理事會에서 계획확정

家政大學同窓會(회장李仁子)는 지난 4월 16일 서초동 「나침반」에서 30여 명의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停年退任教授 및 前現職 學長을 초청 5월12일에 열릴 예정인 「스승의 날」 기념행사, 가을에 계획하고 있는 홈커밍데이 행사, 木蓮會의 연사를 실은 화보제작 등에 대한 협의가 있었다.

吳相洛교수 墓碑 제막

經大院 故人회고 모임가져

經大院同窓會(회장李燦河·신한회계법인대표)는 지난 5월1일 경북 의성에서 1박2일 일정으로 故吳相洛교수 묘비제막식을 가졌다. 故吳相洛교수(93년 9월 별세)는母校 초대 경

藥大3회 任員개선

藥大3회同期會(회장孫貞植)는 지난달 3일 갑남 엠베서디호텔에서 임원개선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30여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 朴明煥(동문대응제약)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총무에 金玲·許世杰(동문들)을 선임했다.

표준과학연구원 鄭明世 동문

同院출신 民選취임 異例的



최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제6대 원장에 취임한 鄭明世(86년 醫大卒)는 모교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78년 美네시대에서 이화박사학위를 받던후 귀국, 줄곧 표준과학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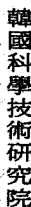
서 근무해온 정은 표준 연구원 출신이다. 특히 중대 장관이 임명된 박정호 원장을 임명하면서 박정호에서 탈피, 연구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 민주적으로 선출된 첫 원장이란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鄭明世는 開院 이래 두번째 연구원 출신의 원장이 된다. 김이 표준정정 전문가이기도 한 鄭明世는 「레이저 간섭계」를 이용한

높이 마이크로미터 고정장치(등2차의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음) 「精密測定기」등 10여 편의 저서를 낸 바 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화학자 鄭明世는 韓中化學會(韓中化學會)를 맡고 있으며 지난 8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상했다.

頂上을 달린다

先進國의 最先端기술을 습득하려면 엄청난 재정적 부담 뿐만 아니라 技術移植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21세기를 향해 刻露의 노력을 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頂上에서 技術革新을 이룩한 자랑스러운 同門의 공적을 소개한다. (권지자)

科技研新
시스템室長



韓國科學技術研究院
신원소시스팀연구실 吳
世鍾(58年 丁大卒) 박사
탄탄 자물쇠가 술한연진
흥인일 비면의 공창장을
설치하고 레이저광을 연
소시킬 내부로 투사해 연
가 적은 실험엔진의 개
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
다.

자물쇠연진에서 분사
된 연료가 효율적으로
연소되기 위해서는 연소

[illegible]

排氣가스 濃度측정 기술개발

레이저光이용 擴散과정 관찰

료의 성분, 확산과정, 배기가스의 성분 및 농도등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실내에 연료가 적정하게 흡입 분포되어야 하는데 6백분의 1초안에 연소가 완료되는 짧은 시간이내 연료의 입자분포가 양호로 뒷바시팅은 더

연료 확산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구성 개발하였

이 기술은 레이저광을 쏜 기체들이 에너지를 흡수한 후 일정한 파장의 빛을 재방출하는 성질을 이용한 것으로 관촬 장치의 설치된 특수 카메라(CCD카메라)를 이용하여 나노초(DO.O초)단위까지 연속적인 촬영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바이다. 촬영된 映像의 진위를 이용하여 분석하고 진위를 판별하는 것

및 순간적인 정보를 측정하는 방법인 매우 까다로운 기술로서 종래에는 단순 반복 실험에만 의존하여 많은 시간과 경비가 투입되고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다.

특히 분석되는 염료는 흡기 포트 내에서부터 미립화, 기화, 액마루 형성 등의 복잡한 과정을 거쳐 실험관에 유입되

나아서 연소 후에 생성되는 CO₂, NOx, C, CO, 탄화수소 화합물 등의 생성종으로부터 레이저광으로 투사시켜 측정하는 레이저광 이용기법을 연구할 예정으로 이 기술이 개발되면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유독 가스 생성인자를 규명하여 이들의 생성을 低減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李鍾協
母化學
立學
今校



廢水에서 重金屬을 선택적으로 分離·抽出해내는 기술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내 화학자에 의해 개발됐다.

모교 회교(回教)와 李鍾
協(89) 丁大正)교수(李
지간 12월) 이후 함흥
장학(長學)의 서울대학
안정(安定) 주철로(周
韓國·濟州) 국제신요인
에서 구리(古里)를 패수
승인(承印) 韓國(韓國)
회교(回教)로 천리(天
리(理)간(間)에 있는 신
조(趙)로 회수(回水)가
회교(回教)를 구리(古

廢水 重金屬 추출 기술 각광

銅・ニッケル等 回收 최첨단 技術

카를 세라만 부인만에
결혼하러 출생하고자 하
는 중급숙에 맞는 적당
한 산도(pH)를 유지시
키면 구리, 니켈, 아연, 코
발트 등을 선택적으로 추
출한다. 「중금속」은 처
리방법과 달리 폐수처리
후 노성물을 이용하여
않고, 추출한 중금속을
재활용할 수 있으며, 설
치 및 운영비용이 저렴
수, 5년만에 개가를 올
린李교수는 「최근 중금
속폐수를 다량 배출하는
전자·전기·도금업체를
대상으로 수산화 실험

李光炯
電科
算技
研
究
院



李光炯(1951~1995)
4년 全北 井邑출생으로
78년 母校 工大 産業工
學科를 졸업하고 80년
科學技術院에서 碩士學
位를 받았다. 亞洲大教
授에서 세브렌로 En
zy chip 개발에
심혈했다. 이 작품이 의
미를 갖는 것은 순서로
는 세브렌이나 기하이
를 쓴 뒤야만 밝힌 아니

라 범용 퍼지시스템의 개발은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첫번째 시도이며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퍼지 컴퓨터를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는 데에 있다.

人工知能 퍼지시스템 세계에서 첫개발 성공

컴퓨터두뇌 작동 느낌·感情상태 情報제공

있다. 이렇게 되면 컴퓨터의 두뇌가 1백28개가 되는 셈인데도 명확한 기준이 없고 사람마다 각각 차이를 보이는 애매한 것이나 각종 소프트웨어의 정보도 컴퓨터가 이해하고 판단해 그 상용의 적절성으로 알맞는 정보를 수행할 수 있다. 즉 퍼지 기술이 발전할수록 컴퓨터는 인간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李훈은 개발하는 퍼지 컴퓨터의 인간과 대화하고 모의 상용화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는 퍼지 컴퓨터의 특징을 예고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李훈은의 研究業績으로는 퍼지 열리베이트와 전문가 시스템 개발을 들 수 있다. 퍼지 열리베이트는 벌써 상용화됐으며 현재 개발 중인중이고 전문가 시스템(製鐵所內의 여러 단계를 연결하는 철도의 상태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이르는 것으로 92년 光陽제철소에 설치돼 현재 활용되고 있다.

世界人名辭典에도 수록돼 있는李훈은은 현재 재 프랑크(FRANK)의 초점연구원, STED 2000, 0000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연구개발자들을 달고 있다.

한결과 호의적으로 구
리. 니켈 등 중금속을 추
출해 내는데 성공했다』
고 밝혔다.

李公述은 이직 화술
적인 연구단체에 불려하
지만 실용화될 경우 화
경염염 방식은 물론 장
기적으론 한 해발전과정
에서 발전하는 오염물정
을 분리·회수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며 "그동안 美國, 日本
獨逸 등에 특허를 출원하
였다"고 밝혔다.

[illegible]

모임 탐訪

「6.25의 渦中에 뿔뿔이 흩어졌다가 釜山 光復洞 어느 女商高의 관자집 校舍에 설치된 戰時聯合大學에 흠뻑히 가득한 교실」

▲졸업 30주년 기념행사사진(뒷줄 왼쪽에서 네번째가 金致卿회장)

주요업사로 활약하고 있는
퍼펙트 나노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나노 테크놀로지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
고 있는 100% 국내 기업인
주요업사로 활약하고 있는
퍼펙트 나노 테크놀로지
개발하는 나노 테크놀로지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
고 있는 100% 국내 기업인

다 부서져 가는 책상을 끼고 앉아, 뒤편 배를 졸라매고 2, 3, 4학년의 수업을 진행을 있던 재주다 부리며, 각 시의 글을 맺어 1953년 3월 28일 한국군사학교에서 1학년의 수업을 맡고 있던 김래俊(金來俊)은 방사線科(放射線科)의 고교생에게, 7월 7일이었던 1953년 7월 7일 7시에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2년마다 임원개선을 한다. 1월 7일은 임시총회를 하는 날도 부분총회의 원칙으로 되어 있다. 오죽하면 다른 동지 회의에서도 부분총회의 모평화됐지만 그때만 해도 同會가 처음이었고 정기적인

在學時 공동回顧錄 억어 話題

졸업 30 週年 恩師 초청 謝恩 品 증정 도

특히 이 모양에서는 대
학출판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92년 11월에 롯데호
텔에서 부부동행으로 심대
한 모양을 갖고, 이제는
모두 정년모양하신 金邊
敏, 崔基哲, 李周檀, 李雄
植 교수님에게 감사패와 사
다.

의 임하시합제와 신임생
명단을 비롯하여 학창시절
에 겪었던 4.19와 5.16
의 관련기사 그리고 '혁명
화사'들의 출연에 관한 대
학신문의 기사들을 발췌하
여 편집한 特異한 책이
다.

또 재하시 공부했던 노
트내용과 시합제틀도 20
여페이지에 복사 수록되어
있고 대화 4년동안의 주
요행사 및 사건들을 간추
린 학창일지가 월별로 정
리되어 있다. 더불어 모든
회의원들의 가족사항과 주소
를 정리하고 있다.

이 때 30여년 전의 하창
시절을 회고하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 現存인 金
의 초창기에 있었던 일과
오늘의 하창의 판한
기사와 함께 4명의 은사
를 밝히려는 것만 매우 어
이외인지 후 「하창회고집」
을 발간하는 것만 매우 어

期別모임을 갖거나 줄임기
별모교에發展基金을
내고 정년퇴임한 동기에게
10萬으로 만든 행은
갖고자 한다」는申東烈申
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夫婦동반 相助會구성 紐帶강화

40周年기념 母校에 1千萬원 기탁



▲졸업 40주년 홈커밍 행사때 모교의대건물에서 기념촬영

의 열쇠를 증명하기 시작
한 모임도 바로 醫大 7회
였다. 이러한 모습은 나를
후배나 동기회에 자금이
도기에 충당했고 이제는
이런 행사를 흔히 볼 수
있게 됐다.

東萊眼科(화장)은 『우리들
의 가장 큰 계획은 모두
건강해서 멋진 50주년 기
념행사를 함께 치는 것
이고 그렇게 되면 최초로
준인 50주년 기념행사를 개
최한 모임』이란 기록을

지난해에는 졸업 40주년
졸업행사를 통해 모교에
추가하게 될 것'이라며 웃
었다.

천만원을 기탁했고 일본으로
로기 여행행을 다녀왔는데
가끔 콜로모인을 갖는 것이
전부였던 이들에게는 큰
추억과 자랑거리가 됐다.
『우리가 이만큼 성장한 것
은 모두 母校의 덕분이라
생각하고 母校를 더욱 사
유명으로 실했던 總務制를 폐
지함으로써 會長中制로

[illegible]

이것이 또 기묘한 미련
하와 후배들을 위한 작화
사업도 계획하고 있었으며
왕으로 한 사람도 아끼지
말고 먼저 기지도 말고 대
학 졸업 50주년의 특별여
는 새로운 회고집을 만들
어 보자고 다짐하고 있다.
師大출신들은 學風의 영향
을 받은 탓인지 同學間의
연결고리가 강하여 스스로를
父老같이 알고 있는 것을
「五十生會」에서도 읽을 수
있어 후회한다.

[illegible]

同會를 구성하고 있는
會員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申東烈 柳仁相 高澤容
郭一龍 金龍振 韓榮杓 金
溫子 金來俊 金洛律 李冕
相 宋元普 白承龍 金鎮華
朱舜五 徐洪圭 金明哲 李
舜在 朴錫誠 李鍾贊 孫晉
吳方俊 熙 李寅誠 李尙國
金周完 黃重淑 李相敦 林
秀吉 洪錫英 李敬智 金宰
錫 車喆煥 權長遠 金炯健
姜洙祥 鄭若薰 吳珍振 趙
成根 金載榮 李相鳳 嚴太
鉉 任昇宰 申大均 朴文甲

자율선출해선임 韓國科學技術院(KAIST) 원장에 취임한 沈相哲(62년 文理大卒) 등은 이날 포부를 밝히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인재의 육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學問의 모든 것』 박원정을 추구하며서 응용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계에 대한 기여를 높이는데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지난 8일 理事會에서

沈相哲은 특히 『學問의 모든 것』의 초점을 맞춰서 3년동안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의 육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沈相哲』은 KAIST 원장에 취임한 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인재의 육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고 말했다. 沈相哲은 특히 『學問의 모든 것』의 초점을 맞춰서 3년동안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국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의 육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세계수준 연구기관 육성이 목표 碩座교수起用 우수교수確保주력

契約高 3백억 넘어 産學협동 活性化이뤄

제도의 개선과 과기원의 교육과정 재편으로 출현하고 있는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의 육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沈相哲』은 KAIST 원장에 취임한 후,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과학기술을 선도하는 인재의 육성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金商周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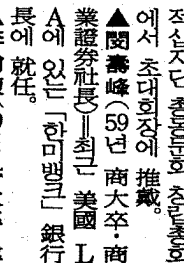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張潤錫 (55년 醫大卒) 大卒母校 教授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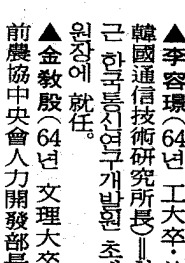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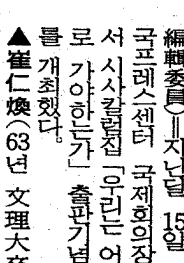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張潤錫 (55년 醫大卒) 大卒母校 教授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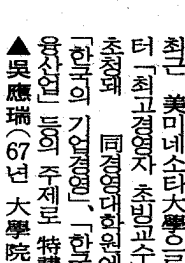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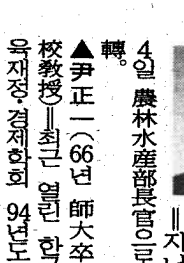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張潤錫 (55년 醫大卒) 大卒母校 教授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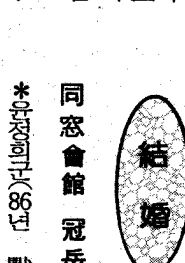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張潤錫 (55년 醫大卒) 大卒母校 教授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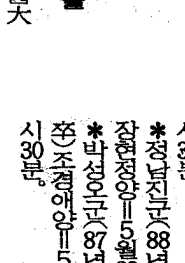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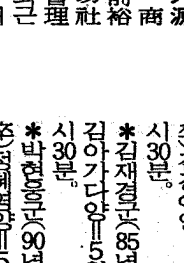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張潤錫 (55년 醫大卒) 大卒母校 教授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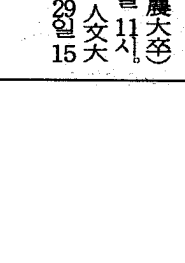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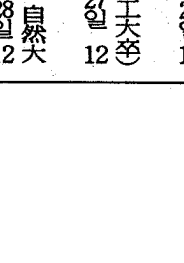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張潤錫 (55년 醫大卒) 大卒母校 教授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張潤錫 (55년 醫大卒) 大卒母校 教授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張潤錫 (55년 醫大卒) 大卒母校 教授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李商淳 (56년 工大卒) 大卒母校 建設社長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張潤錫 (55년 醫大卒) 大卒母校 教授 本會理事 昨 4월 15일 産學協同研



卒 김미진 양 5월 1일 11시
 * 최경호 군 (92년 齒大卒)
 과계 위양 5월 1일 12시
 30분

自然보호의 꿈을 樹木園에서

수목원과 식물원의 4백여 종의 식물을 실재해 왔으나 유난히도 많은 수목원이 조성되어 있다. 樹木園과 식물원이란 말은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前者는 나무를 주로 심고後者는 나무를 심지만草本類를 주로 하는 것이 다르다. 필자는 장기간 동안 양자를 합쳐서 소개하고자 한다. 국립수목원(전부 예산)과 서울대학교(전부 서울)의 수목원을 소개한다.



名譽教授 金 謙

서울은 일본의 1백20개소 중 하나인 1백8개소(그리고 東南亞地域)의 5개의 열대 우림을 가진 設置數보다 實的水準이 높다.

필자가 고지대 있을 때 서울대학교 주변의 5백만 평의 수목원을 배경으로 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후자의 하천(이리) K(강)의 하천을 받아서 서울대의 수목원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가 장시간의 서울대가 장시간의 서울에서



李昌福 母校名譽教授

國立수목원 없어 창피한 身勢

滅種위기 식물 퇴살하기 어렵

法的根據가 마련됐다. 지구상에서 국립수목원 이 없는 나라는 드물다. 그러나 유난히도 이런 類에 가까운 서울대의 수목원을 퇴살하기가 어렵다. 이가 장시간의 서울대가 장시간의 서울에서

도 찾기 어려운 훌륭한 수목원 후보지가 됐다. 1971년 대통령령 566호로 서울대에서 수목원을 설치할 수 있는

장화하기 위해 수목원연합회가 조직되고 국제식물원연합회까지 가입해 국제식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배려가 마련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南京에서 국제식물원연합회 총회가 개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필자가 이끄는 韓國自然植物研究會(국립수목원)가 14명이 自進參加해 2명의 한국 대표의 자라까지 마련되고 있다.

관공들의 입면서 각종 觀光客의 수도 늘어났고 있는데 그중에서 서울의 三九(三九)를 전후로 해서 3년 가까이 팔고 있다. 이같은 中年以上의 老齡化 人口의 增加를 뜻하고 있다. 실제로는 연평균 1.2%의 인구의 다다를 人口의 增加를 뜻하고 있다. 한때는 韓國의 人口가 1.2%의 增加를 뜻하고 있다. 한때는 韓國의 人口가 1.2%의 增加를 뜻하고 있다.



李相殷 母校醫大教授

前立線炎

〈完〉

高熱頭痛 오통에 방광폐쇄 症狀

完治 어려운 專門醫士시 따르면 治癒가능

전립선염은 전립선의 만성 염증으로, 주로 50대 이상의 남성에게 발생한다. 초기에는 고열, 두통, 요통, 방광폐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된다. 본교 의학부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가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의대생들이라면 증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전립선염은 전립선의 만성 염증으로, 주로 50대 이상의 남성에게 발생한다. 초기에는 고열, 두통, 요통, 방광폐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상이 악화된다. 본교 의학부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가진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年會費납부 지로案內

지로번호 = 7500875

郵便對替번호 = 010017-31-0621565

理事	1월 13일	4월 1일
一般	1월 13일	4월 1일

人名 밑 원내 숫자는
該當大學의 卒業年
度입니다.

◆ 人文大學

▲임창환 ⑧9

• 一般會費 / 2만원	會費入金 지로번호
• 理事 / 7만원	및 郵便對替 번호
• 常任理事 / 20만원	• 지로번호
• 監事 / 30만원	7500875
• 副會長 / 50만원(公職者)	• 우편대체번호
1백만원(一般)	010017-31-0621565
• 會長 / 5백만원	

▲김정준 ⑧2 ▲김

▲송재
▲송영(60)

▲이호인 (70) ▲이

▲강영현 ⑦▲

[illegible]

[illegible]

출전자들의 모임인 「수학
회」에서 만나 자년에 결별
신을 올렸다.

畏女 徐承賢 同門은 올렸

소식

1백40명 승인요청

명 ▲기계 기계설계 1명
우주공학 25명 ▲공정공학 1명
설비화학공학 20명 ▲건설
플랜트공학 15명 ▲건축학
15명 ▲토목공학 25명 ▲
산업공학 10명 ▲조선해양
공학 5명 등이다.

점씩 줄었다.

중을 두고 편성됐다.

王師範大체를 교육과 의
美術大는 음악의, 김진오
김진로 심신양을 선발키로
했다.나 普大의 심신과 기
악과 및 작곡과 국악과의
일부전과목의 한해수능
시험 반영비율(%)에 의하면
5% 국고 實檢査방
영미영(%) 50%로 5% 상
이 책정됐다.

音大 一部학과 修能下限線 신설

特例입학자엔該當國언어 논술추가 결정

母校인 95학년도 본고사를
내년 1월12일과 13일
이를동안 치르기로 결정했
다.

自然系本考查科에 영
어를 추가하는 한편 인문
계는修能試驗의數理探究
영역Ⅱ(사회·과학)점수에
40%의加重價를부여키로
했다.

音大 음대학의 한
수업시간에 한 학생
두어 명은 수의 한
을 요구하고 의과
을 대신으로 하는
화전원의 전 해
인자를 용하는
를 추가하고 있다.
科目別 配點比率은 본고

원 서 교 부	94년 12월 28일(수)~95년 1월 5일(목)
원 서 접 수	95년 1월 2일(월)~5일(목)
본 고 사	" 1월 12일(목)~13일(금)
면접및교직작성	" 1월 13일(금)~14일(토)
실 기 고 사	" 1월 12일(목)~16일(월)
합격자 발표	" 1월 29일(일)이전

점 등으로 올해와 마찬가지로이다. 人文系의 경우 수학 I의 만점을 올해 90점에서 1백점으로 높이고 영어는 1백20점에서 10점 낮췄다.

올
總豫算
천6백99억

研究지원 福祉시설 投資부문 増額

올해 母校 總豫算이 國
庫 9백80만원과 期成會費
3백69만원, 구구당구보조
비53만원, 특정사업비2
백96만원 등 총 1천6백
99만원으로 확정됐다.
지난달 期成會理事會에

서의결판을해기성화에
살은인전비등결전선경
비의구성비는축소하는
반면기초사신록비22억
1천만원과실업보험기
기구입비10억원을배정
하는등교육과研究支援
을위한부분의투자는크
게늘었다.

또한간대화(원)의학생
회실집기등의확충과수
련장개수등을위한경비
로약2억원을책정하는등
學生福祉施設改善에도비

는 4년, 전임감사는 2년의 계약기간을 조건으로 채용된다. 모교가 교수를 계약제로 채용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다른 대학들에게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教授評價制 本格 실시

業績우수교수 選定 추천계획도

진 재일동 정년보장
사 성과급 연구보조비 지
급 및 연구수상선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
다.

여 총장 및 학(원)장에 게
추천할 수도 있다.

하편 「學位操規規程」은
그간 유망으로 실했던 대학원
연구과정제도를 사실상 폐

특히 이를 위임하는 탁
월한 업적이 있는 교수를
「業績 優秀教授」로 선정하
는 데, 지난해 9월 1일 이후
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醫大학장·保大院長에

李純炯·李容旭 교수 취임

신인醫大學長에 李純炯 교수와 保健大學院長에 李 容旭교수가 4월 11일자로 임명되다.	金勝煜교수의 후임으로 醫大學長에 취임한 李純炯 교수는 62年 의대를 졸업한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50
---	--



▲金容旭 保大院長 ▲李純炯 醫大學長

대교수를 거쳐 모교에 부임, 이 때 학생-교무협조위원회, 졸업생회, 교우회, 대한기생충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金貞順 교수의 후임으로 보건대학원을 맡게 된 金容旭 교수는 61년 수대

를 통해 보건대학원을 다시 개설하고, 원장이며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하며, 64년 보건대학원 수석장에

▲金容旭 保大院長 ▲李純炯 醫大學長

골수암 鬪病 중인 在學生

金京蘭嬢돕기운동 벌여

骨髓癌 4기로 癰病中
인 金京蘭(안국어교유
4년)을 돌기 위한 모금
운동이 母校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다.

러 學業을 지탱하기 위
해 苦學의 여려움을 견
어왔으며 지금도 입원비
를 대기가 어려운 것
로 알린다.

에 동문선배들이 후배사
랑하는 마음으로 적극
참여해 주기를 부탁했
다.

모금에 참여하고자 하

金礦이 소출된 국어로
유과 화성제를 구상한
「김정희」와 투쟁자의
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1만원 이상을 짓는
로 예산하는 김정희 처
는 줄줄이 아래 구좌번
호를 이용하면 된다.
▲서울지하철: 출구

대천우유회「차체성
과 모듬물」으로 모듬
3백50만원의 이익
을 얻어「구두」의 노
래」개최, 장의와 일
을 자산을 주축하고 있
는 ▲김정희 07
5104 39407-063

행하며 모듬향과 대천위
통장을 통해 4백60만원
가량이 모듬됐다.

김영호 "어려운 가정환
경 탓에 그간 별다른 치
료를 받지 못했을 뿐더
러

대천위의 재인자 홍성호
군(국·교·육·4년)은
"어려운 서울대생을 위
한基金이나 각종 사회
복지단체의 支援를 알아
보고 있다"며 모듬향동
9·011·356240
▲체신부·한양인 0
12542100804
60

901356240
▲체신부·한양인 0
12542-00804
60